

안녕하세요.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14학번 오권철입니다. 코로나시기를 뚫고 어렵게 한국 야금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약 1년동안 취준을 하면서 참 많은 점을 배운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배운 지식과 경험들 후배님들에게 알려주어 후배님들은 저처럼 1년동안 취준을 안하고 더 빠르고 쉽게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학교생활

학점 - 공대에서 학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평점 4.0을 넘는다면 그 사람은 그 전공의 학부과정에 대부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좋은 평가를 받고, 평점 4.0 ~ 3.0은 지식이 어느정도 있고, 성실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평점 3.0 미만은 조금 학과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성실함이 의심된다 라고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평점 3.0 미만인 분들은 다른 스펙(자격증, 높은 영어 점수, 대외활동, 인턴경험 등)을 남들보다 더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약 면접에서 "왜 학점이 낮은가?"라는 질문이 들어온다면, 공모전을 준비하느라, 대외활동, 봉사 등 이러한 활동들을 핑계로 학점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시면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 솔직하게 학점을 챙길 수 없었던 이유를 말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기본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사원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학점이 낮다는 것은 면접관들이 지원자의 전공지식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이므로 관련 자격증이나 외부 수업을 수강했다는 수료증을 어필하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어필하시면 면접관들에게 나쁜인상을 없애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 학점이 3.0이상인 분들은 학점에 대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외활동 - 우선 제 생각에 대외활동을 하는 이유는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활동이 미래에 지원하실 회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외활동이 회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대외활동을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 팀원 간의 불화를 해결한 경험,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 등이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이나 직무가 명확하다면 그 관련 대외활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명확한 기업과 직무가 없더라도 일단 많은 대외활동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팀프로젝트 - 팀프로젝트도 대외활동과 마찬가지로 지원하신 직무의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남대 신소재공학 과에서는 많은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팀 프로젝트 경험들을 잘 정리해놓으신다면 자소서를 쓸 때나, 면접에서 답을 할 때 유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리해야 할 경험들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 팀원 간의 불화를 해결한 경험,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

인턴(현장실습) - 인턴을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 직무에 대한 이해와 회사의 분위기를 어느정도는

알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턴을 하실 때는 하루에 하나씩은 꼭 배우고 간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인턴을 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학 - 어학은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점수를 완성해 놓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기업들이 토익스피킹, 오픽의 점수를 반영하는 추세이고, 토익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사기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토익스피킹과 오픽 중 하나 선택해서 점수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증 - 자격증은 꼭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서류합격에 도움이 조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자격증을 땀다면 그 자격증을 왜 취득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채용절차

자기소개서 - 일단 자소서를 통해 면접관들이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역량입니다. 자소서의 원리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의 지원자의 모습을 예측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 경험을 잘 정리하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떤 역량을 어필할 것인지 생각하고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관련 더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 채널에 "인싸담당자 제이콥"을 참고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좋은 자소서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나의 경험을 정리하는 법, 자소서 문항에서 묻고 싶은 역량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법, 그 역량을 어필하기 위해서 자소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내용을 설명해줍니다. 이 채널을 통해 자소서를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차 면접 - 모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의 1차면접은 실무자 중심으로 면접관이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1차 면접에서는 주로 직무에 대한 이해와 직무를 잘 수행하는 역량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직무에 대한 조사를 꼭 하셔야합니다. 공대학생들이 주로 취직하는 직무는 연구개발(석박사), 생산기술, 품질관리, 생산관리가 주 직무들입니다. 그러니 이 직무에 대한 조사를 인터넷이든 취업사이트 어울림을 통해 선배님을 만나서 직무에 대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직무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직무에 대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역량과 관련된 경험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2차 면접 - 2차 면접에서는 임원분들이 면접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분들은 평상시에 두괄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면접자들도 두괄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두괄식 답변으로는 질문에 대한 나의 의견 - 그 의견의 이유 - 나의 의견에 대한 근거 순으로 답하시면 임원분들이 훨씬 듣기 좋을 것입니다. (두괄식 답변은 1차면접에서도 좋습니다.)

(ex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제가 뽑혀야 하는 이유는 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끈기를 가졌다고 뽑혀야 하는 이유는 이 끈기를 가진 인재가 회사에서 주어진 어려운 업

무를 완수해내는 데는 끈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저는 이 끈기를 활용해서 목표를 달성한 경험으로는 000한 경험이 있습니다.)

면접 추가 팁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경험을 잘 정리하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험을 situation, action, result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머리속에 암기하면 면접에서 관련 질문이 들어온다면 자연스럽게 저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팁은 면접은 순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예상질문을 준비하지만, 이를 다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가령 예상질문을 매우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를 다 외워서 답변하는 것은 매우 힘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분명 다 예상하시고 외우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맞다고 생각하기면 모든 예상 질문을 준비하시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저는 취업스터디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울림을 통해서 학교 취업스터디에 가입해서 모의면접을 많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은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인 요소도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없어 보이는 모습, 너무 긴장하는 표정, 긴장이 되어 다리를 떨거나, 목소리를 떠는 것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설령 말하는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언어적인 요소가 심하다면 면접관은 내용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긴장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마인드컨트롤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기타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1. 나에 대한 이해

저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강점, 나의 성격, 나의 약점 등 이러한 나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면접자들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나의 성격, 장단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BTI검사와 갤럽 5포스 검사를 통해 본인의 성향과 강점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갤럽 5포스는 유료입니다. 하지만 돈 값은 충분히합니다.)

2. 직무에 대한 이해도

직무에 대한 이해도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자소서 문항 중 입사 후 포부에서도 도움이 되고, 1차면접에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간략하게 직무에 대한 소개를 하자

면 연구개발은 마케팅부서에서 미래에 잘 팔릴 것 같은 제품이 무엇인지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이 제품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 구현해보는 업무를 하는 것이 연구개발입니다. 생산기술은 연구개발에서 개발한 제품을 어떻게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생산관리는 생산기술에서 찾은 값싸게 생산하는 방법을 통해 최대한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인력 스케줄 관리, 납기관리를 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는 생산과정에서 일정한 품질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이 원인을 찾고 품질을 저해시키는 요소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자세히 조사하셔서 많은 직무정보를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4. 기타 전하고 싶은 말

저는 항상 자소서를 쓸 때 지원동기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이유 말고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나의 주변사람들이 위험이나 곤경에 빠졌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문제해결역량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찾게 되었고,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사에 입사하여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봄으로써 문제해결역량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 덕분에 취업에도 조금 자신감이 생겼고, 이러한 자신감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게 나만의 지원동기, 꿈을 찾는 것이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만의 지원동기, 꿈을 찾으신다면 분명 답답한 취업이 아닌 희망찬 취준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과 14학번 오권철이었습니다.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